

2020학년 10월 모의평가의 15번 문항 오류 제기합니다.

cucuzz.com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연구소

①번 선지와 ④번 선지에 대한 오류 제기입니다.

오류 제기 1. ④ C, E: 유정성(有情性)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간과한다.

싱어의 입장에서 테일러와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의 선지입니다.

먼저, 테일러는 유정성이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선지는 싱어가 테일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유정성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선지는 싱어가 칸트에게 제기할 수 없는 비판입니다.

근거 1.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한 결과, '유정(有情)'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정(有情)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1. 인정이나 동정심이 있음.

유정-물(有情物)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1.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감각이 있는 것.

즉, '유정성이 있는 존재'에는 인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에서 '유정성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간과한다.'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 테일러가 싱어를 비판할 때, "생명체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간과한다."라고 하면, 생명체 안에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인간과 동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싱어의 입장에서 "생명체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간과한다."는 틀립니다.

근거 2. (1) 칸트도 유정성, 쾌고 감수 능력이 인간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봅니다.

(2) 칸트는 자연 파괴의 성향이 감정(동정심, 감수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다고 봅니다.

- 동물은 비록 이성은 없을지라도 살아 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훨씬 더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것을 삼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공유된 감정을 무디게 하며, 사람 간의 관계의 도덕성에 참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고 점차 그 소질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 자연은 비록 무생물이지만 아름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도덕 자체는 아닐지라

도 도덕성을 매우 증진하며, 적어도 도덕성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감성의 기분이랄 할 수 있는데, 자연을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그러한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감수성의 성향이란 심지어는 사용 가치에 대한 어떤 이익관심과도 무관할지라도 아름다운 수정의 형상, 묘사하기 어려운 식물들의 아름다움과 같은 어떤 것을 사랑하는 성향을 말한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근거 3. 해당 선지의 기본형을 대우를 취해보면 칸트 입장에서 옳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옳습니다.

문제 선지: 유정성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도덕적 지위를 지니면 유정성이 있는 존재다. (p->q)

= 유정성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q->~p)

오류 제기 2. ① A, C: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에 대해 의무가 있음을 간과한다.

테일러와 싱어가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의 선지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비이성적 존재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비판을 테일러와 싱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칸트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니며, 다른 존재들과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인간만이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 6평 칸트 제시문]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2015학년도 수능 칸트 제시문]

근거 2.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김남준 교수님께서도 ‘~에 대한 의무’와 ‘~에 관한 의무’는 다른 것으로, 구별해서 말해야 된다고 강의하셨습니다.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1185851>

1분 25초 ~ 1분 26초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간접적인 의미에서 의무로 받아들여진다. 동물과 관련된 의무가, 간접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동물의 관한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이죠) 직접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 자연에 관한 의무는 성립 가능하다 (간접적 의무이고요). 자연에 대한 의무가 성립되려면 이거는 자연이 도덕적 지위를 갖

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 의무인데, 인간 중심 주의자들은 자연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인정하지 않고, ~ 자연과 관련된 간접적 의무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거 3. 지금까지 평가원, 수능에서 동물과 관련한 의무를 '동물에 대한 의무'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19학년도 6평: 동물 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015학년도 9평: 식물을 보존하는 것이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2014학년도 수능: 동물 학대 금지는 간접적으로만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따라서, 15번의 답은 ① A, C: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에 대해 의무가 있음을 간과한다.
이 적절합니다.